

GRACE 선교소식

2026년 1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06명 (자체파송 78%)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선교!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한 주간, 새해를 맞이하여 은혜이슬 특별 새벽기도회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시 145:4)”입니다. 이번 은혜이슬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저와 함께 GMI 선교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쿠바에서 사역하시는 **구스타보 선교사님**은 칠레 현지인이시며, GMI 아르헨티나 신학교에서 훈련받으셨습니다. 9년간 쿠바에서 GMI 은혜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4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3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어 현지 제자들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이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프랑스 파리에혜교회 **송준호 목사님**은 부모님 이신 송석배 선교사님과 김은영 선교사님과 함

께 어려서 프랑스로 파송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아 현재 파리에혜교회를 담임하시며 불어권 선교사역(모로코·콩고 지역)에 귀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이는 다음세대가 연합하여 사역하는 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M국에서 사역하시는 **곽OO 선교사님**은 GMI 선교사훈련원 1기 출신이시며, 어려운 공산권 지역에서 교회 개척과 다양한 선교 사역을 팀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전OO·김OO 선교사님, 강OO·이OO 선교사님, 류OO·킨OO 선교사님, 김OO 선교사님, 이OO 선교사님 등 다섯 팀이 함께 M국 전역에서 팀 사역으로 공산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최OO 선교사님**은 아랍 선교사로, 매우 어려운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난민 학교와 GMI 신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시는 **김도현 선교사님**은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철수한 상황에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나성한인교회 50주년 특별새벽부흥회 인도 : 1/14-1/15
- EM Leaders' Retreat 말씀 인도: 1/19
- 교역자 비전캠프 인도: 1/26-1/28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서도 끝까지 남아 신학교와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역은 콜롬비아까지 확장되었고, 큰 부흥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강단에 서게 되신 것에 감격합니다.

J국

고OO / 이OO 선교사

지난 1년, 안식의 시간을 잘 마치고 12월 2일, 다시 J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병환(폐암 말기)과 임종 하시기까지 영혼 구원의 소망을 어머니께 전할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버지께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의탁하며 사역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교회

다시 만나게 하신 감격과 눈물로 생명교회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가 떠나 있던 지난 시간이 그들을 더욱 유익하게 하사 여기 우리 7명의 지체와 멀리 독일로 이민 간 시리아 자매와 Zoom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치료와 회복,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이번 달 12월, 대학 학부를 모두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난 4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이의 진로 또한 잘 결정되어 새롭게 첫걸음을 새 정착지에서 곧 시작합니다.

행복한 성탄절과 복된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2.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선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 하소서.
3. 아랍 영혼에게 증거된 복음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4. 자녀의 정착과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

M국

한OO / 김OO 선교사

호산나 교회

호산나 교회는 14일, 21일, 25일 3번에 걸쳐 성탄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밤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캐럴송으



로 주님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한국은 새벽송이 있지만 이곳은 저녁송이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송하는 교회가 드물지만 지금도 성탄의 추억 하면 새벽하늘에 울려 퍼진 새벽송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12월 28일에 있을 선거 때문에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마을 이장을 찾아가 집회 허락을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성탄절을 기다린 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이곳 아이들도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는데 이들 중에 믿는 자가 일어나 기를 기도합니다.

하비스트 교회

하비스트 교회도 23일 유치원, 24일은 주일학교 그리고 25일은 교인들을 위한 성탄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니 부모들을 행사에 초청하기도 쉽고 또 유치원생들이 자라나 자연

스럽게 주일학교 학생이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군부투하고 있는 사역자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드는데 교회 건물이 노후화되어 금이 갔고 우기시에는 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은혜교회

은혜교회도 23일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는 쌀국수 100인분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비빔국수와 같은 것인데 국수를 각종 야채와 계란 그리고 볶은 닭고기에 기름을 섞어 무쳐먹는 음식인데 맛이 좋습니다. 나눔 문화가 발달하여 있는 이곳에서 교인들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는데 역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5일에는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드렸고 각 그룹별로 준비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파퓰아뉴기니

김운영 / 남영미 선교사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소중한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님들의 중보와 헌신이 모국어 성경을 기다리는 영혼들과 저희 사역에 큰 울타리가 되어 든든하게 지켜 주시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날마다 새 힘과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길 마음 깊이 기도드립니다.

말씀 따라 40년, 변함없는 사명

GBT가 걸어 온 지난 40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4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GBT는 '2025년까지 남은 모든 민족 안에 성경 번역을 시작하자.' 라는 비전을 가지고 걸어

왔습니다. 비전을 선포하던 당시에는 3,000개의 언어가 단 한절의 성경도 가지지 못한 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곳곳에서 성경이 번역되어, 현재는 544개의 언어만이 성경번역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번역 사역은 긴 시간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시간표 안에서 각 공동체가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언어'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은 영혼들의 기쁨과 변화된 삶을 볼 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역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와 동역자님들과 동역교회가 작은 부분이나마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제나 감사와 경외함이 넘칩니다.

김운영 선교사는 관련 용어의 전문 서적을 참고하면서, SIL의 언어학 용어사전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과, 집중력과 일관성을 요하지만, 이 번역이 완성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더 탄탄한 언어학적 기반 위에서 성경번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에



고려대학교에서 있을 GBT의 협력기관인 그릴락(GRILAC)의 언어 학회와 학회지 발간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로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영미 선교사는 정기검진에서 난소암 수치가 정상범위 안에 있으나 이전보다 두 배로 올라가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무리 건강을 위해 애쓰다 해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음을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평안히 나아갑니다.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특별히 킬리만자로 산자락 작은마을 킬레오 그레이스센터와 저희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킬레오 공동체의 보건소 건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외부 페인트는 마감되었고 곧 내부 천장 작업과 전기 공사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 배수 공사를 진행해야하고 타일 작업과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면과 달리 내부 화장실 작업은 금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마을 사람들이 관리 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보건소 외부에 화장실을 지었더군요.

저희는 화장실 공사가 없어져서 일이 줄어 나쁠 것은 없지만 이 동네 수준이 이 정도니 어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동네 마을 회관이나 공공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것이 실상이긴 합니다.

싱글맘 쉐터에 환각연기를 피운 후 도둑이 자고 있는 17세 엄마의 살림을 훔쳐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연말이 되니 여러 상황에 변수가 이제 저희 사역지까지 일어나니 탄자니아의 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시건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정부 초등학교 교실 바닥 콘크리트 작업으로 아이들의 공부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었습니다. 정부학교 사정이 너무 열악해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바닥이 흙먼지와 깨어진 시멘트 먼지로 덮여 학교에 아이들을 전도하려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감사하게 교실 중에 가장 열악한 곳에 복도와 교실 내부 콘크리트 작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킬레오 그레이스 교회의 크리스마스는 축제 마당이었습니다. 온 성도가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은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자신이 준비한 예수님 생일잔치에 참여하여 율동과 찬양으로 모두가 기쁜 예배와 잔치음식, 그리고 풍성한 선물까지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선물로 이웃들에게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



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12월 방학을 맞아 공부방을 시작하였습니다. 4학년이 되어도 읽지 못하는 아이, 읽을 수는 있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이, 중학생인데 구구단을 모른 아이, 공부방을 진행하면서 이 동네 정부 학교에서의 수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생을 두명 구해서 가르치는 연구를 다시 한 후 아이들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고 책을 읽히고 독후감을 쓰게하며 미술과 음악으로 전인교육을 하는데 쉽지 않지만 주님이 보내신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는 정상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선교지가 마찬가지겠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생기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2025년은 기쁜 한 해였지만 또한 어려운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역이 필요함을 느끼며 함께 할 동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 저희를 진두 지휘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감사합니다.

M국

곽OO / 엄OO 선교사

성경 말씀 속으로

형식과 내용은 그릇과 물과 같은 관계, 성극이라는 그릇에 복음의 생명수를 담습니다. 성극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하루를 여는 새벽 기도회



한 부모 환경의 재정 가장의 청년들, 부모를 잃찍 떠나 보내고 남은 청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중풍의 아버지를 모시는 청년, 가정 형편으



로 학교를 중퇴하고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청년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T국

이OO / 권OO 선교사

지난 성탄 예배에 T국, 아제리, 몽골, 우즈벡, 이집트, 카메룬, 한국 등 여러 민족에서 5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다보면 이슬람의 거대한 공룡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고 자녀들과 함께 아파하며 울었고 재정도 많이 쏟았지만 크게 내세울 만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시편22:27-28. 절망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의 믿음의 선포가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믿음의 선포임을 깨닫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몽골에 교회와 제자들이 세워진 것, 신학교를 통해 몽골 전역에서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 선교 비전이 선포되고 T국까지 몽골인 선교사가 오게 된 것, 그 어떤 것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열심이었습니다.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분의 능력과 열심은 T국 땅을 새롭게 하시고 반



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1995년 몽골 단기선교 가서 함께 선포했던 이 말씀! 그 말씀을 다시 T국 민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T국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T국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T국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T국의 주재심이로다”**

태국

주진석 / 유경숙 선교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서 4:13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며, 지난 한 해의 선교소식을 전하고, 또한 새해의 꿈과 계획된 사역을 알리면서 선교지와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모든 동역자들과 섬기시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대신 합니다. 전쟁과 자연 재해와 수많은 사고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서도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쉼 없이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에 진행된 사역 (8월-12월)

CNL(Grace Encounter): 10월과 11월에 걸쳐 하반기 CNL을 진행, 기존 성도들의 섬김



과 함께 4명의 캔디가 졸업하며, 교회의 성도로 정착하였습니다.

Thai-Lao GTD#2: 11월 3일-6일(3박 4일) 콘깬에서 진행, 팀멤버(6명) 및 캔디(10명)가 참여하여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캄보디아 어린이 야간 학교: 12월부터 캄보디아 성도 쿤라이(주일학교 교사)가 매일 저녁 인근의(깁무 동네)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모아 캄보디아어와 태국어 가르치며, 귀한 섬김을 감당하였습니다(이곳 태국의 건설 노동자로 온 캄보디아 가정은 거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들이며, 부모가 작업장으로 간 동안 아이들은 내버려져, 놀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캐롤링과 성탄예배: 태국은 성탄절(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12월 20일(토), 찬양팀과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몇 가정을 방문하여 성탄 캐롤링사역을 진행, 각 가정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과자를 준비해 주었고, 쿤땡(주일학교 교사) 집에서 만두와 도너스, 풍선, 과자 등을 풍성히 준비하여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고, 12월 21일(주일) 오후에 성탄절 감사 예배(음식, 선물, 공연)에 약 80여명(어린이 포함)이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태국, 캄보디아 어린이 20명은 ‘예수 사랑하심’의 찬양을 한국어, 영어, 태국어로 찬양을 하였고, ‘홍해바다 건넌 미리암처럼’의 찬양곡에 맞추어 율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2026년 사역 계획(1분기 사역)

1월 사역

다니엘 기도: 1월 1일부터 21일까지(3주간), 매일 저녁 7시에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 모임(개인, 교회, 국가를 위한 기도)

예비 선교사 선발 및 훈련: 새해 시작과 함께 4명의 선교사 지망생을 선발하여 주말에 사역 훈련, 성경공부 진행(연 1회 outreach 진행), 교회 내에 숙박시설 구비 및 사역비 지원(쿤늑, 쿤웃, 쿤또, 쿤완차이)

구역예배, 노방 전도: 매월 1회씩 진행

2월 사역

전도폭발사역: 태국 및 라오스 지역 교회와 함께 LA은혜교회 주관으로 연 2회 진행

GMI 아시아권역 선교대회 참석: 2월 23-26일(베트남)

3월 사역

세례식 및 가족 수련회: 3월 말 계획

CNL(Grace Encounter): 3-4월에 상반기, 새가족 대상으로 진행



김OO / 박OO 선교사

교회개척자 지도자 합숙훈련 2025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도자, 교회개척자 현지 합숙훈련이 6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국-수단 난민

국제기구 추산치에 따르면 E국 내 외국인 수는 900 만 명을 넘었으며 약 133개국 출신 난민이 E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E국에는 수단과 시리아를 비롯한 60여 개국 출신의 난민 47만 명 이상이 유입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수단 군대와 수단 신속지원군 간의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3년 12월 기준 최소 37만 8500명의 수단인들이 E국으로 건너갔으며 이 중 20만 7,000명 이상이 유엔난민기구에 등록되었습니다. E국에서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개척자 훈련에 10명의 E국에 거주하는 수단 난민 청년들이 지원하여 8주간의 합숙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랍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회개척자 합숙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훈련받은 청년들은 스스로 모여서 난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K8 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기독교 청년 교사들입니다. 취약한 수단의 교육 환경과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미성년자로 구성된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청년 교사들은 그래도 리더들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모두가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동족인 수단인들을 향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기도제목]

1. E국의 수단 난민학교 교사들이 8주간의 전도자 합숙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자, 교회개척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카이로 내의 수단 난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훈련받은 10명의 교사들이 난민 학생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I국(서벵골 지역) 훈련

I국의 서벵골 지역은 힌두교가 다수이지만, 인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슬람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역사적으로 방글라데시(동벵

골; 이슬람교)와 종교적, 문화적 연관성이 깊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기독교는 매우 낮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힌두교(약 70%)와 이슬람교(약 27%)가 다수를 차지하며, 기독교 인구는 약 0.72%로 매우 적습니다. 이곳은 신앙을 이유로 한 박해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윌리엄 캐리같은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B국-집시

15세기 중반 북인도에서 발칸반도를 거쳐 유럽에 유입된 유랑민족, 집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유랑민족의 생활 방식과 습성을 가진 이들은 유럽사회로부터 오랫동안 받아온 사회적 편견으로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교육과 의료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국 전체 인구 900만 명 중 집시가 26만 명에서 45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한다고 추정합니다. 집시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헌신된 집시 그리스도인 소수가 전도자, 교회개척자 훈련을 받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여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B국과 온 유럽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2. B국 개척장로교 신학교의 학생모집과 운영을 위해서
3. 훈련을 받고 파송받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도록
4. 2026년 훈련에 예비된 학생들이 모집되어서 전도자로 훈련받도록

L국-시리아 난민

2022년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약 1,200만 명이상이 난민이 되었고, 이 중 600만 명의 국내 실향민(IDP) 발생했습니다. 이웃 국가로 피난한 난민이 560만 명에 달하며, L국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훈련생들은 다양한 민족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시작하였습니다. 17살 청소년에서부터 52세된 가정교회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세대 가 합숙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12명의 훈련생들이 6주 동안 배운 기도훈련, 말씀훈련, 전도훈련, 생활훈련을 통하여 각 민족의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정교회가 개척되게 하소서
2. 시리아 난민들과 난민촌에 대한 L국 정부로부터의 어려움, 국제사회에서의 무관심, 줄어드는 원조...여러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교회개척자합숙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을 국교로 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종교 다원주의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24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787개 종족의 약 30.5%에 해당하며, 이들 미전도 종족의 인구는 총 1억 9,30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이번 훈련이 시작된 반둥지역에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최대 미전도종족인 순다족이 약 4천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자바족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민족입니다.

훈련에 참가한 5명의 신학생, 50대의 전도자, 대학을 졸업한 청년 등 7명이 전국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 기도, 오전 강의와 오후 전도실습, 저녁 예배, 성경 통독 등 사역자로서의 기본이 되는 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밤 9시까지 강훈련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약 2천만명)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전도와 복음 증거자, 선교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2. 수백개의 미전도종족과 많은 섬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야훼

<1분단상 148-1월호>

- 김대규 장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 부르며 살고 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한 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말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정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관념적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이 중요하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전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일 것이고 후자는 외식적인 신앙에 머물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다. 그분의 생기가 나의 생명과 호흡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보호하시며, 내 안에서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이름은 무엇일까? 야훼(히, יהוה 영, YHWH)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고 말씀하신데서 유래한다(출3:14).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호에 야훼르 에호에 (אהוה יהוה יהוה)”이며,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으로 번역되었다.

야훼는 히브리어로 4개의 히브리어 자음인 י (요드), ה (헤), ו (바브), ה (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로는 “YHWH”로 “테트라그램마톤(Tetragrammaton: 4개 문자)”이라고도 한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 직접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Adonai, 주님)”라고 읽는다.

고대 히브리어는 상형문자이기에 글자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י (요드)는 팔, 손을 뻗는 모습으로 힘, 손, 권위, 창조를 상징한다(시89:13). ה(헤)는 두 팔을 벌린 사람의 형상으로 숨, 존재, 계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계시와 생명 그리고 보라는 의미가 있다(창2:7). ו(바브)는 갈고리모양으로 서로 묶어

나 연결하는 것을 나타내며 말뚝, 못, 연속성을 상징한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나타낸다. 마지막 ה(헤)는 반복되는 계시의 완성을 뜻한다. 앞의 ה(헤)를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강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사43:1). 이러한 문자적 상징을 통해 “손과 못을 보라”(창고. 요20:27)는 메시지가 떠오른다.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목상을 가능케 한다.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자존하시는 주권자이시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성과 불변성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 만남으로 교제하고 소통하여 사랑(아가페: 조건없는 사랑) 안에서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시23편).

야훼는 “구원하시는 구속자” 이시다. 그 분은 같은 의미의 “예슈아(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는 곧 “야훼 하나님”이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는 “예슈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야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헬, Πατήρ: 파테르)”라고 부르고 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인가. 우리의 분에 넘치는 파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게 선택받은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순종해야 한다. 아버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생령이 되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숨결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고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찬양해야 한다(시150:6).

우리는 주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노래해야만 한다. 이 땅이 하나님나라로 충만케 되어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야훼,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즐거이 그분을 찬송케 해야 한다. 구원을 노래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드러 예배하며, 영광을 올리는 무리가 되게 하자. 사랑(Agape)의 맛에 세상이 취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젖어있는 세속적인 것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야훼 아버지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우리를 부르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정진해야 하는 것이다.

야훼!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파푸아뉴기니 김운영 / 남영미 선교사

1. 파푸아뉴기니 공용어로 번역된 전도책자가 각 부족 공동체에 널리 전달되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2. 진행 중인 언어학 용어사전 번역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경번역 선교사들의 사역에 유익하게 쓰이도록
3. 그릴락(GRILAC) 언어 학회와 학회지 준비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 되도록
4. 남영미 선교사의 점점 높아지고 있는 난소암 수치가 안정되어 재발하지 않도록,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해 주셔서 면역력이 회복되도록, 저체온증이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고, 암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로 변화되도록
5. 아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여 감사가 넘치도록, 일터와 삶을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M국 한OO / 김OO 선교사

1. 건강하게 하소서
2. 동역자들과 한마음 한뜻 되게 하소서
3. 선교센터를 세워 주소서
4. 한글학원에 수강생을 보내 주소서
5. 교회들을 지켜 주시고 세워주소서
6. 열매 맺는 사역 되게 하소서
7.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1. 어린이 도서관 및 공부방 건축으로 부족한 교육현실을 메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여자 싱글 선교사(59세)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레이스 센타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3.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 사역으로 번 아웃이 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하소서.



P국 이OO / 장OO 선교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2025년은 훈련의 시간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돈되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귀한 한 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함께 울고 기도해주신 모든 중보와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1. 재판송을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협력 교회와 후원자, 중보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세워지도록
2. 비자 창출을 위한 회사 설립 준비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3. 4월 파송까지 장OO 사역자가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저희 가정이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1.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 캄보디아와 태국과의 전쟁을 통하여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 속히 평안을 주옵소서.
3.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T국 이OO / 권OO 선교사

1. 몽골인 선교사들과 함께 12명의 T국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T국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오메르, 우이가르, 아이수가 지도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2. GMI 몽골 선교사 목회자 훈련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가 잘 되도록
몽골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최적의 교육과정개발, 훈련원 건물, 훈련생 동원 등의 문제들이 잘 진행되도록
3. 성령충만과 영적 리더십, 마음의 평강과 기쁨, 육신의 건강을 주시도록
4. 자녀들, 부모, 형제들, 특히 믿지않는 처가가족이 예수를 만나 세계선교 마무리에 쓰임받도록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멕시코 노갈레스 인카운터 (1/18-1/23)
S/L: 이창기 목사
디렉터: 김대규 장로
문의: 전홍준 집사 (714-914-9980)
- 칠레 Grace Encounter 1기 및 비전 트립 (2/4-2/10)
S/L: 안영식 목사
문의: 차윤석 집사 (714-334-2340)
- GMI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2/23-2/26)
문의: 이희갑 집사 (714-337-3091)
T/M: 1/14, 6:30PM, 웨딩채플

• 인도 GIGL # 10 (3/2-3/6)

S/L: 김황신 목사
렉터: 브라이언 홍 장로
문의: Jimmy Kim (714-743-6722)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